

유녀의 2인칭대명사 사용에 관한 일고찰

: 『春色梅児誉美』와 『春色辰巳園』를 중심으로

민승희 _ 중원대학교 교수

목 차

- I. 서론
- II. 선행연구
- III. 분석방법
- IV. 2인칭대명사의 사용양상분석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근세 작품인 『春色梅児誉美』와 『春色辰巳園』에서 유녀들이 사용한 2인칭대명사를 중심으로, 2인칭대명사의 종류, 화자와 청자의 관계, 호응하는 술어의 경의도, 공기하는 1인칭대명사를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녀들은 남성 손님에게 주로 「おまはん」을 사용하였다. 유곽에서 일하는 女浄瑠璃語り도 손님에게 「おまはん」을 사용하였으나, 女髮結는 「おまはん」이 아니라, 「おまへさん」을 사용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둘째, 유녀들끼리 대화할 때 서로를 「おまはん」 또는 「おまへ」를 사용하였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감정이 내포되었을 때는 「おめ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셋째, 남성 손님에 대한 높은 경의를 나타내고자 유녀가 손님에게 「あなた」를 사용한 용례는 찾아볼 수 없다. 유녀어 2인칭대명사는 상대적으로 단순함을 보여준다.

넷째, 「おまへさん」과 「おまはん」은 호응하는 술어의 경의도가 유사하였다. 반면, 「おまへ」는 평상동사와의 호응도 다수 보여 경의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おまへさん」, 「おまはん」, 「おまへ」 모두 1인칭대명사 「わちき」와 공기하고 있다. 또한 「わちき」와 더불어 「わたい」도 유녀들이 다수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유녀, 2인칭대명사, 春色梅児誉美, 春色辰巳園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일본 근세 후기의 닌조본(人情本)인 『春色梅児誉美』와 『春色辰巳園』를 언어자료로 하여, 이들 작품 속에서 유녀들의 2인칭대명사 사용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닌조본(人情本)은 서민의 남녀간의 애정에 대해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관계를 묘사한 풍속소설을 말한다. 이러한 풍속소설 중 하나인, 『春色梅児誉美』와 『春色辰巳園』를 본고에서 연구 자료로 다루고 있다. 『春色梅児誉美』와 『春色辰巳園』의 저자는 다메나가순수(為永春水)이며, 1832년-1833년에 간행되어 인기를 끌었던 소설로, 작품의 주된 공간적 배경은 유리(遊里)이고, 주요 등장인물은 유녀와 유곽의 손님이다.

본고는 『春色梅児誉美』와 『春色辰巳園』 작품 속에서, 유곽의 유녀들이 사용하는 2인칭대명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유녀어에 대한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광의의 정의 : 유녀어는 유녀, 나카이(中居), 풍속업종사자, 유곽의 손님 등, 넓게 유곽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遊女語は、遊女、中居、風俗業者、遊客等、広く遊里に関わる人々が用いたことばづかい)¹⁾

1) 村上謙, 「近世後期上方における遊里語のあり方」, 埼玉大学国語教育論叢, 埼玉大学

- 협의의 정의 : 에도시대(1603년~1867년)에 유녀가 사용한 특징적인 언어. (主として江戸時代(1603年~1867年)の遊女によって使われた特徴的な言葉である。)²⁾

본고에서는 유녀어는 유녀가 사용하는 특수한 언어로 정의하기로 한다. 다만, 유녀어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녀뿐만 아니라, 유곽과 관련이 있는 여성의 2인칭대명사는 조사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한다.

정리하면, 『春色梅児誉美』와 『春色辰巳園』를 언어자료로 하여, 이들 작품 속 유녀들의 어휘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어휘 중에서, 특히 2인칭대명사의 종류, 2인칭대명사와 호응하는 술어의 경의도, 2인칭대명사와 공기하는 1인칭대명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유녀어는, 「사토나마리(さとなまり)」라고도 하며, 유녀 특유의 언어로 교토(京都)·시마하라(島原)의 유곽에서 발생하여, 그 이후, 오사카(大阪)·신마치(新町)로 이어져 발달하였다. 유곽에서 특수한 언어가 발달한 것은 구루와(郭(くるわ))라고 불리는 특수한 사회에서, 유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집단적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에도시대, 유곽은 사회적으로 일종의 독특한 특권이 인정되는 곳이었고, 언어를 포함하여 풍속 유행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특수한 지역의 특수한 집단인 유녀가 사용하는 언어, 즉 유녀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시마하라(島原)·신마치(新町)·요시하라(吉原)의 유리어 변천을 상세히 분석하고, 일본어사에 있어서 유리어의

国語教育学会, 2014, p.9.

2) チョールナヤ・アンナ, 「江戸語の位相—遊里語・武士詞」, 第3回国際日本学 コンソシアム, お茶の水女子大学大学院, 2009, p.166.

지위를 확고하게 정착시킨 真下三郎(1966)의 『遊里語の研究』³⁾를 들 수 있다.

또한 近藤豊勝(1993)은 『江戸遊女語論集』⁴⁾에서 유녀가 사용한 어휘를 근세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면밀히 고찰하고 있으며, 민승희(2019)⁵⁾에서는 유녀이라고 불리는 「おまはん」의 사용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山崎久之(1963)는 『国語待遇表現体系の研究』⁶⁾에서 근세 대우표현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체계화하였는데, 근세어 중 유리어의 대우표현체계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으며, 특히 유녀의 인칭대명사에 체계의 특징을 타 계층의 체계와 비교 분석하여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 근세 인칭대명사에 대한 선행연구로 杉崎夏夫(2003)의 『後期江戸語の待遇表現』이 주목할 만한데, 杉崎夏夫(2003)는 곳케이본(滑稽本)·닌조본(人情本)에 자료로 하여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인칭대명사를 분석하면서, 유녀의 인칭대명사 사용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본고는 닌조본(人情本)인 『春色梅児誉美』와 『春色辰巳園』을 텍스트로 하여 해당 작품의 유녀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용례를 바탕으로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둘째, 2인칭대명사의 사용 양상에 주목하고 있으며, 작품 내에서 등장인물의 언어 사용변화 및 유녀가 아닌 여성어와의 비교 분석도 행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근세⁷⁾의 인칭대명사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

3) 真下三郎, 『遊里語の研究』, 東京堂出版, 1966.

4) 近藤豊勝, 『江戸遊女語論集』, 新典社, 1993.

5) 민승희, 「「おまはん」에 관한 일고찰」, 『일어일문학회연구』 110, 한국일어일문학회, 2019.

6) 山崎久之, 『国語待遇表現体系の研究』, 武蔵野書院, 1963.

7) 일본의 근세는 일반적으로 1603년부터 1868년까지를 일컬으며, 宝暦(1751년~1764년)을 경계로 근세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

다. 따라서 본고는 근세 인칭대명사 연구라는 큰 테마에서 연구의 연속성을 지니며, 인칭대명사 중 특히 유녀의 인칭대명사 연구라는 특수성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닌조본(人情本)인 『春色梅児誉美』와 『春色辰巳園』에 나타난 언어양상 파악이라는 근세어에 대한 어휘적 측면의 연구의의도 지닌다.

Ⅲ. 분석방법

『春色梅児誉美』와 『春色辰巳園』에서 유녀에 의해 사용된 2인칭대명사의 용례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春色梅児誉美』와 『春色辰巳園』에서 유녀에 의해 사용된 2인칭대명사의 종류 및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조사한다.

둘째, 『春色梅児誉美』와 『春色辰巳園』에서 유녀에 의해 사용된 2인칭대명사와 호응하는 술어의 경의도를 조사한다.

셋째, 『春色梅児誉美』와 『春色辰巳園』에서 유녀에 의해 사용된 2인칭대명사와 공기하는 1인칭대명사를 조사한다.

Ⅳ. 2인칭대명사의 사용양상분석

1. 2인칭대명사의 종류

『春色梅児誉美』와 『春色辰巳園』는 남녀 주인공을 포함하여 등장인물의 수가 약 5~6명 정도인 비교적 단순한 내용의 작품이다. 주요 등장인물 중, 본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유곽과 관련된 일을 하는 여성 화자의 2인칭대명사를 언어 자료하여 사용 양상을 분석해 보겠다.

연구 범위는 『春色梅児誉美』에서 お長, 米八, 此糸, お由, 仇吉가 화자로

써 사용하는 2인칭대명사와 『春色辰巳園』에서 米八와 仇吉가 화자로서 사용하는 2인칭대명사로 한다. お長, 米八, 此糸, お由, 仇吉를 선정한 이유는, 이들은 작품 속에서 내용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유녀 신분이거나 혹은 유곽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유녀어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고의 연구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분석에 앞서, 등장인물 お長, 米八, 此糸, お由, 仇吉를 소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등장인물 소개

작품 이름	『春色梅児誉美』와 『春色辰巳園』
お長	상인의 딸, 남자 주인공인 丹次郎의 정혼자, 경제적 이유로 娘浄瑠璃語 ⁸⁾ 로 일함
米八	유곽의 유녀, 丹次郎의 정인
此糸	유곽의 유녀, 米八의 동료
お由	女髮結 ⁹⁾ 로 유녀의 머리를 올려주는 일을 많이 담당
仇吉	유곽의 유녀, 丹次郎의 정인으로 米八와 갈등관계에 놓이기도 함

등장인물인 お長, 米八, 此糸, お由, 仇吉가 화자일 때,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2인칭대명사의 종류와 용례 수를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春色梅児誉美』와 『春色辰巳園』에서, お長, 米八, 此糸, お由, 仇吉가 사용하고 있는 2인칭대명사는 「あなた」, 「おまへさん」, 「おまはん」, 「おまへ」, 「おめへ」이다.

8) 온나조루리가타리(女浄瑠璃語)는 조루리(浄瑠璃)를 들려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을 말한다. 이하, 女浄瑠璃語라고 일본어로 표기하도록 한다.

9) 여자의 머리를 빗어서 올려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 또는 그 직업. (女髮結는 宝永(1704-1711년)즈음 유곽에서는 이미 행해졌고, 寛政(1789-1801년)즈음부터는 일반 여성들 사이에서도 유행했다(日本大辞典刊行会編, 『日本国語大辞典』 2, 小学館, 1979, p.884).

〈표 2〉 お長, 米八, 此糸, お由, 仇吉가 사용한 2인칭대명사종류 및 용례수

작품, 등장인물 2인칭대명사	『春色梅児誉美』				『春色辰巳園』		計
	お長	米八	此糸	お由	米八	仇吉	
あなた	0	0	0	3	0	0	3
おまへさん	14	4	0	6	0	1	25
おまはん	2	35	3	0	0	0	40
おまへ おめへ	7	5	2	16	49	51	130
	0	0	1	0	15	31	47

〈표 2〉를 바탕으로, お長, 米八, 此糸, お由, 仇吉이 사용한 2인칭대명사의 특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녀가 남성 손님에게 가장 많이 사용한 2인칭대명사는 「おまはん」이다. 「おまはん」이 유녀어로 사용된 2인칭대명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1)은 유녀 신분인 米八가 丹次郎¹⁰⁾에게 「おまはん」을 사용하고 있는 용례이며, 예2)는 米八가 藤兵衛에게 「おまはん」을 사용하고 있는 용례이다.

예1) おまはんは煩つてゐさつしやるのかへ (春¹¹⁾, 初編卷, 一)

(米八 → 藤兵衛)

예2) をやおまはんは藤兵衛さん、どふしてここへ……

(米八 → 藤兵衛)

(春, 四編卷, 十二)

『春色梅児誉美』에서 예1)과 예2)와 같이, 유녀인 米八가 「おまはん」을 유곽의 손님인 丹次郎에게 사용하고 있는 용례는 총 24예, 藤兵衛에게 사용하

10) 유곽의 손님으로 등장하는 주요 남성은 丹次郎과 藤兵衛이며, 丹次郎은 유곽 唐琴屋의 양자이면서 이야기 후반에 무사가문의 숨겨진 아들로 밝혀지는 인물이다. 또한 藤兵衛는 부유한 상인으로 등장한다.

11) 예문 제시시, 『春色梅児誉美』은 春, 『春色辰巳園』는 色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고 있는 용례는 총 7예를 찾아볼 수 있다. 즉 「おまはん」이 유녀가 손님에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2인칭대명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お長도 娘浄瑠璃語(り)로 일하게 된 후, 예3)과 같이 「おまはん」이라는 2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3) ああそれノ、あのおまはんのひあきな米八さんネとんだことをしましたよ。 (お長 → 丹次郎) (春, 初編巻, 三)

『春色梅児誉美』에서의 米八, お長, 此糸가 사용하고 있는 「おまはん」의 용례를 화자와 청자에 따라 분류하여 나타내면 아래 <표 3>과 같다.¹²⁾

<표 3> 米八, お長, 此糸의 「おまはん」 사용

	화자	화자와 청자	용례 수
おまはん	米八	米八 → 유곽 손님(丹次郎)	24
		米八 → 유곽 손님(藤兵衛)	7
		米八 → 유곽 손님이 아닌 경우	4
	お長	お長 → 유곽 손님(丹次郎)	2
	此糸	此糸 → 유곽 손님이 아닌 경우	3

다만,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女髮結로 일하고 있는 お由의 「おまはん」 사용례는 단 한 개의 용례도 보이지 않는다. 즉 유곽과 관련된 일을 하지만, 유녀라는 신분에는 속하지 않고 남성 손님을 상대하지 않기에 「おまはん」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お由는 남성 손님에게 「おまへさん」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유녀와 女髮結는 2인칭대명사 사용에 있어서, 언어 사용의 차이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12) 『春色辰巳園』에서 유녀인 米八와 仇吉는 상대 남성에게 대해 「おまはん」이 아니라, 「おまへ」 사용하고 있다.

둘째, 유녀 신분인 경우, 손님에 대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녀 동료들끼리 서로를 칭할때도 「おまはん」을 사용하고 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此系가 「おまはん」을 사용하고 있는 용례는 총 3예이며, 3개의 용례의 청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此系 → お長」, 「此系 → ばんしん」, 「此系 → お民」로 此系는 손님이 아닌 유곽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おまはん」을 사용하고 있다.

예4) あれさおかしい。私が持てをりいしたとてしかたがおつせん。おまはん
 ンそれである物を買なましょ。(此系 → 民) (春, 四編卷, 十二)

셋째, 유녀가 손님에 대해 「あなた」를 사용하는 용례가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에도시대는 신분이 중시되는 시기였기에,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상대방에게 높은 경의를 표해야 하는 경우, 「あなた」를 사용하는 것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예5)와 같이, 『浮世風呂』에서 시중을 드는 하녀인 お初는 상층계층의 おさめ에게 「あなた」를 사용하고 있다.

예5) お初: アレ、勿体ない。何のいきにおなぶり申ませう。まことにもこと
 とに、ほんとウヲ、でございますよ。ネエ、あなた
 おさめ: ア、夫は最ううそつこではないのさ…… (『浮世風呂』 p.228)

하지만, 유녀는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상층계층의 남성 손님들에게도 「あなた」를 사용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¹³⁾

유녀인 米八, 仇吉가 남성 손님에 대해 사용하는 2인칭대명사는 「おまは

13) 「あなた」는 『春色梅児誉美』에서 お由의 용례 3개가 보이고, 『春色辰巳園』에서는 米八, 仇吉의 「あなた」의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ん, 「おまへ」¹⁴⁾로 매우 단순화되어 있다. 이러한 단순한 2인칭대명사의 사용은 유곽이라는 곳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람들이 상대방의 신분이나 나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경의도를 나타내는 2인칭대명사로는 「あなた様」, 「あなた」, 「おまへさま」, 「おまへさん」, 「おめへさま」, 「おめへさん」, 「おまへ」, 「おめへ」 등 다수의 대명사가 존재한다. 반면, 유곽의 유녀들이 사용하는 2인칭대명사는 상대적으로 단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春色梅児誉美』에서 お由가 「あなた」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더욱 명확해진다. お由는 女髪結로 유곽에서 남성을 상대하는 일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お由는 청자를 손님이라는 일괄적인 대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위고하에 따라 적절한 경의를 표할 필요성이 있다. 즉 お由가 높은 경의를 표해야 하는 상대방에게 「あなた」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예6)은 お由가 藤兵衛에게, 예7)은 お由가 처음 만나는 나이가 있는 비구니에게, 상대를 「あなた」라고 칭하면서 정중하게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다.

예6) あなたはたしか七年以前佐倉の宿の榎屋の宅に成田かへりの御泊りで
(お由 → 藤兵衛) (春, 三編卷, 八)

예7) お由: あなたは此間お隣でお目にかかった御隠居さま
비구니: 思ひもよらぬお姉さんどふして爰を御存じて
(お由 → 비구니) (春, 四編卷, 十一)

넷째, 근세 전기에는 유녀가 주로 사용하는 2인칭대명사로 「こなさん」¹⁵⁾,

14) 「おまはん」, 「おまへ」이외에 유녀의 「おまへさん」 사용도 찾아볼 수 있으나, 「おまはん」, 「おま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용례는 적다.

15) 近松의 狂言本에서는 「こなさん」의 용례 수 총 25예 중에서, 유녀가 화자인 「こなさ

「こな様」가 있어 그 용례는 여러 작품에서 볼 수 있다. 예8)은 근세 전기 작품인 「博多小女郎波枕」에서 유녀에 의해 사용된 「こなさん」의 용례이다.

예8) こなさんに添はねば、生きてゐる女郎ぢやない。

(어린 유녀(小女郎) → 惣七)

(「博多小女郎波枕」, p.436)

그런데 『春色梅児誉美』와 『春色辰巳園』에서는 「こなさん」, 「こな様」의 사용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こなさん」, 「こな様」가 이미 유녀어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섯째, 유녀의 「あなた」 사용은 보이지 않지만, 「おまへさん」의 사용은 찾아볼 수 있다. 米八와 お長 모두 상대 남성을 「おまへさん」이라고 부르고 있다. 米八가 丹次郎에 대하여 사용한 2인칭대명사를 보면, 「おまはん」의 사용이 24개, 「おまへさん」의 사용이 2개, 「おまへ」의 사용은 1개이다. 예9)는 米八가 丹次郎를 「おまへさん」라고 부르고 있는 용례이다.

예9) お長さんといふ寔にいいなづけのあるおまへさんに。こんなに苦勞するから。間拔の行留りでありますのさ

(米八 → 丹次郎)

(春, 初編卷, 一)

즉 유녀인 米八는 丹次郎에 대하여, 「おまはん」를 주된 2인칭대명사로 사용하지만, 상황에 따라 「おまへさん」, 「おまへ」도 사용 가능했다.

お長가 丹次郎에 대하여 사용한 2인칭대명사를 보면, 「おまはん」의 사용이 1개, 「おまへさん」의 사용이 8개, 「おまへ」의 사용은 1개이다. 아래의 예

ん」의 용례는 12예인 것으로 나타났다(山崎久之, 『国語待遇表現体系の研究』, 武蔵野書院, 1963, p.545).

10)과 예11)은 お長가 丹次郎에 대해 사용하는 「おまへさん」과 「おまへ」의 용례이다.

예10) わりいお貞どころかいつかもうなぎやの二階で、おまへさんが米八さんの貞をおみなさるお貞と言たらそのかはいらしい目に愛敬らしい風をして、喰ついで上たいよふに見えましたものウ
(お長 → 丹次郎) (春, 二編卷, 五)

예11) お長: おまへさんは誠に憎らしいよ
丹次郎: なぜ
お長: なぜといつて先刻も米八さんのこと (春, 二編卷, 四)

米八와 お長の 丹次郎에 대한 2인칭대명사 사용을 비교해 보면, 「おまはん」, 「おまへさん」, 「おまへ」라는 3개의 인칭대명사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차이점은 米八가 丹次郎에 대하여 주로 사용한 2인칭대명사는 「おまはん」이고, お長가 丹次郎에 대하여 주로 사용한 2인칭대명사는 「おまへさん」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米八는 유녀의 신분이고, お長는 女浄瑠璃語り라는 신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본다. お長는 경제적인 이유로 비록 현재 女浄瑠璃語り로 일하고 있지만, 원래는 상인의 딸이었기에 유곽의 손님에 대해 「おまはん」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사용을 최소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 米八와 お長는 모두 丹次郎와 연인관계이지만, 丹次郎와 お長는 유곽에서 만나기 전부터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고, 丹次郎와 米八는 유곽에서 만난 손님과 정부(情婦)의 사이라는 차이점에 기인한다.

〈표 4〉는 『春色梅児誉美』에서 丹次郎에 대하여 米八과 お長가 사용한

2인칭대명사의 종류와 용례 수를 정리하여 나타낸 표이다.

〈표 4〉 米八·お長の 丹次郎에 대한 2인칭대명사

『春色梅児誉美』			
화자와 청자 이름	화자와 청자 관계	2인칭대명사	용례수
お長 → 丹次郎	娘浄瑠璃語り, 정혼자 → 유곽 손님	おまへさん	8
		おまはん	1
		おまへ	1
米八 → 丹次郎	유녀 → 유곽 손님	おまへさん	2
		おまはん	24
		おまへ	1

마지막으로 「おめへ」의 용례를 보면, 예12)는 此系가 米八을 나무라면서 동료 유녀에게 「おめへ」를 사용하고 있는 『春色梅児誉美』에서의 용례이다.

예12) うたがひいしたがそんならばおめへに心が移たゆへ
(此系 → 米八) (春, 二編卷, 六)

또한 『春色辰巳園』에서 米八와 仇吉의 「おめへ」 사용례가 각각 15개, 31개 보인다. 이 용례 중에서, 米八가 仇吉에게 사용한 용례가 10개, 반대로 仇吉가 米八에게 사용한 용례가 12개이다, 즉 총 46개의 「おめへ」 용례 중에서, 米八와 仇吉가 서로 사용한 용례가 22개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즉 米八와 仇吉는 모두 유녀 신분으로 들은 동료 관계인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おまはん」이나 「おまへ」 뿐만 아니라, 「おめへ」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おめへ」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작품 속에서 米八와 仇吉가 한 남자를 사이에 둔 갈등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비난하는 장면이 다수 보이기 때문이다. 예13)은 米八가 仇吉에게, 예14)는 仇吉가 米八에게 「おめへ」를 사용한

용례이며,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예13) いゝかげんにしねへな。おとなしく請けてゝやりやアなんだな、おも
 しろくもねへ。おめへにやアいふことが沢山あるが、此方やア勘弁し
 て居てやるのだ……マアしづかにしてあめへの心にきいてみな
 (米八 → 仇吉) (色, 初編卷, 一)

예14) モウいゝかへ、もつとしやべんねへな。あんまりいろいろなことをい
 っつて、おめへの恥を多分かきな、自惚のねへものはねへといふが、お
 めへのやうに其様行止つてありやア、何も気のもめることも有めへ
 (仇吉 → 米八) (色, 初編卷, 一)

2. 2인칭대명사와 호응하는 술어

오장, 米八, 此糸, お由, 仇吉가 사용한 2인칭대명사와 호응하고 있는 술어를 살펴보면 <표 5>과 같다.

<표 5> 2인칭대명사와 술어의 호응관계

		『春色梅児誉美』	『春色辰巳園』
2 인 칭 대 명 사	あなた	一でございませう お目にかかった	용례없음
	おまへさん	おっしゃる おくんさなる お見なさる	来ました 一はないのか
	おまはん	お一なさる お一さないます お一申します おくんさなる	용례없음

		『春色梅児誉美』	『春色辰巳園』
	おまへ	おいひだ おくんさない はなさぬ 行く	知っておいでだろう いいだす 腹を立てなくてもいい いじめなさる
	おめへ	용례없음	いふ きいてみな 氣をもむことも有めへ きじをかきな

첫째, 「おまへさん」과 「おまはん」의 호응하는 술어의 경의도는 유사하다. 예를 들면, 예15)와 예16)은 「おくんさなる」라는 모두 경의를 포함하고 있는 동일한 술어와 호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おまへさん」, 「おまはん」의 차이는 경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있고 할 수 있다.

예15) おみらんゑおまへさんがそんなに言てお呉なさると私はもう、母人
でももあるよふに思はれてかなしいよ (春, 初編卷, 二)

예16) ゑゑもふおまはんは私をそふ思つてお呉なさるのかへ (春, 初編卷, 一)

『春色辰巳園』에서 「おまへさん」의 용례는 2개 보이는데, 그중 아래의 예 17)은 「おまへさん」가 「一ます体」와 호응하고 있어, 청자에 대한 화자의 공손함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예18)은 유녀인 仇吉가 幸三郎에게 화를 내며 말하는 장면이라서, 仇吉는 유녀로 상대방에게 경의를 포함하고 있는 2인칭대명사인 「おまへさん」을 사용하면서도 술어는 평상동사(平常動詞)¹⁶⁾를 사용하고 있다.

16) 평상동사(平常動詞)는 경의를 포함하지 않은 동사를 가리킨다.

예17) お岩: 関さんよくいらつしやいましたね私やあ誠に今日はもうノヽ
 大変に急用があるのだけれど おまへさんと聞たからまあちよつ
 とお顔を見ないと気になるから欠出して来ましたよ
 (お岩 → 関) (色, 三編卷, 九)

예18) 仇吉: 陰陽師身のうへしらずとやらサ
 幸三郎: ナゼ
 仇吉: おまへさんは内室さんはないのかへ
 (仇吉 → 幸三郎) (色, 二編卷, 六)

둘째, 「おまへさん」, 「おまはん」와 「おまへ」의 호응하는 술어의 경의도를 살펴보면, 위의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おまへさん」과 「おまはん」는 주로 경의를 포함하고 있는 술어와 호응하고 있지만, 「おまへ」는 「行く」, 「いいだす」, 「知っておいでだろう」와 같은 경의를 포함하지 않은 평상동사(平常動詞)와의 호응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즉 「おまへ」를 유녀가 사용하는 경우, 「おまはん」보다는 낮은 경의도를 나타내는 술어와 호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19)는 「おまはん」가 경의를 포함하고 있는 술어와 호응하고 있는 용례이고, 예20)은 「おまへ」가 평상동사(平常動詞)와 호응하고 있는 용례이다.

예19) ととものお世話ついでに冥土とやらの店請もおまはんにおたのみ申ます
 (春, 二編卷, 四) (米八 → 藤兵衛)

예20) どれおいらも支度をしようや。丹さんおまへ今日今の所へ行ときかないよ
 (春, 三編卷, 九) (米八 → 丹次郎)

더 나아가 「おまへ」는 청자에게 화를 내고 있는 장면에서도 사용되고 있

다. 예21)은 유녀인 仇吉에게 빗 독촉을 하는 鬼九郎에게, 仇吉는 鬼九郎를 「おまへ」라고 부르면서 너무한다고 화를 내는 장면이다.

예21) 体がよごれきつてもうノノノ私が身で私があいそのつきる様に
穢れて居るものをおまへも少しは何とか思つておくれでも直にあい
そのつきる種だはね

(仇吉 → 鬼九郎)

(色, 四編卷, 十一)

셋째, 『春色辰巳園』는 『春色梅児誉美』의 속편에 해당하는 소설로 두 작품에 모두 등장하는 유녀는 米八이다. 米八가 상대 남성 丹次郎에 대하여 사용하는 2인칭대명사를 보면, 『春色梅児誉美』에서는 경의를 나타내는 술어와 함께 「おまはん」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春色辰巳園』에서는 평상동사(平常動詞)와도 호응하면서 「おまへ」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春色梅児誉美』과 『春色辰巳園』의 저자는 동일하며, 『春色辰巳園』은 『春色梅児誉美』의 속편이다. 그래서 『春色辰巳園』의 내용은 『春色梅児誉美』의 내용에 이어서, 동일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로 이어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春色梅児誉美』에서 米八와 상대 남성 丹次郎은 유녀와 손님으로 만나 애인 사이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속편인 『春色辰巳園』에서 米八와 丹次郎은 이미 허물없이 지내는 가까운 애인 사이로 발전한 후이다. 그리고 仇吉와 丹次郎도 이미 남녀 간의 정을 나누는 가까운 사이이다. 즉 米八와 丹次郎, 仇吉와 丹次郎 모두 일반적인 유녀와 손님의 관계보다 깊은 연인관계라고 할 수 있다. ‘유녀와 손님’으로 인식하여 「おまはん」으로 부르기보다는, 부부와 같이 친근하고 가까운 남녀관계라고 인식하여, 유녀 米八와 仇吉는 상대 남성을 「おまへ」라고 부르고 있다. 예22)와 예23)은 『春色辰巳園』에서 米八와 仇

吉가 丹次郎에게 평상동사를 사용하면서, 상대를 「おまへ」라고 부르고 있는 용례이다.

예22) 丹さんおまへほんとうに機嫌をなほしたのかへ
 (米八 → 丹次郎) (色, 三編卷, 九)

예23) をや丹さんおまへどうしたんだへ 何もそんなに腹を立なくつても
 いいじやあないか
 (仇吉 → 丹次郎) (色, 四編卷, 十)

〈표 6〉 米八의 丹次郎에 대한 2인칭대명사의 변화

米八→ 丹次郎	おまはん		おまへ ¹⁷⁾	
	『春色梅児誉美』	『春色辰巳園』	『春色梅児誉美』	『春色辰巳園』
	24	0	1	26

뿐만 아니라, 『春色梅児誉美』 하나의 작품 내에서도 작품의 후반부에서, 米八와 丹次郎의 관계가 유녀와 손님의 관계를 넘어서는 둘 사이의 보다 친근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米八가 丹次郎에게 「おまへ」를 사용하는 예24)와 같은 용례도 보인다.¹⁸⁾

예24) どれおいらも支度をしようや.丹さんおまへ今日今の所へ行ときかないよ (米八 → 丹次郎) (春, 三編卷, 九)

17) 민승희, 「人情本の「おまへ」の使用様相分析」, 『比較日本学』 32, 漢陽大学校 日本学国際比較研究所, 2014, p.367. (『春色梅児誉美』과 『春色辰巳園』에서 사용된 「おまへ」 용례의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18) 민승희, 「「おまはん」에 관한 일고찰」, 『日語日文研究』 110, 한국일어일문학회, 2019, p.75.

전술한 바와 같이 『春色梅児誉美』에서 米八은 丹次郎에 대해 「おまはん」을 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표 6>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春色辰巳園』에서 米八은 丹次郎에 대해 「おまはん」을 사용한 용례는 단 한 개의 용례도 찾아볼 수 없고 모두 「おまへ」를 사용하고 있다.

米八의 丹次郎에 대한 2인칭대명사의 변화와 더불어 술어도 변화하여, 『春色梅児誉美』에서는 경의를 포함하는 술어와 「おまはん」을 주로 사용하였고, 『春色辰巳園』에서는 경의를 포함하지 않는 술어와 「おまへ」를 사용하고 있다. 이로써 米八의 丹次郎에 대한 관계 인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넷째, 유녀들 사이에서 서로 상대방을 칭할 때 일반적으로 「おまはん」을 사용하므로, 이에 대한 용례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春色辰巳園』에서 유녀인 米八과 仇吉은 서로 「おまはん」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おまへ」라고 칭하고 있다.¹⁹⁾ 이는 米八과 仇吉의 丹次郎에 대한 2인칭대명사가 「おまはん」에서 「おまへ」로 변화한 것과 마찬가지로의 이유에 근거한 변화하고 생각한다.

米八과 丹次郎의 관계, 仇吉과 丹次郎의 관계가 ‘유녀와 유곽의 손님 관계’에서 친근한 ‘연인관계’로 변화하여 2인칭대명사가 「おまはん」에서 「おまへ」변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米八과 仇吉의 관계가 ‘유녀인 동료 관계’에서 ‘丹次郎를 사이에 둔 여성들’이라는 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개별적인 동료관계보다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여, 米八과 仇吉은 상대방을 다른 유녀 동료들 이상의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증빙으로, 유녀들의 특수한 2인칭대명사인 「おまはん」에서 일반적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おまへ」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표7>은 유녀인 米八과 仇

19) 米八과 仇吉은 서로를 「おまへ」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おめへ」라고 부르기도 한다. 「おめへ」라고 부르는 경우는 대부분 분노나 비난의 감정을 가지고 대화하는 경우이다. 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벗어난 부정적 감정을 내포하는 대화에서의 「おめへ」에 대한 연구는 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하겠다.

吉가 서로 「おまへ」를 사용한 용례 수를 표기한 것이다.

〈표 7〉 유녀 동료간(米八 → 仇吉)의 「おまへ」 용례 수

2인칭대명사	작품	『春色辰巳園』	
		화자와 청자	용례수
おまへ	米八 → 仇吉		9
	仇吉 → 米八		15

예25)는 米八가 동료 유녀인 此糸를 「おまはん」이라고 부르면서 문말에서 「-ます体」를 사용하고 있는 장면이고, 예26)은 米八가 동료 유녀인 仇吉를 「おまへ」라고 부르면서 술어로 평상동사(平常動詞)를 사용하고 있는 장면이다. 예25)와 예26)은 「おまはん」와 「おまへ」가 호응하는 술어의 정의도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예문이다.

예25) おいらん、おまはんのおいきは、日に幾たびいはない事はありません。どうぞ今までのやうにひみきにておくんなさいヨ
(米八 → 此糸) (春, 二編卷, 六)

예26) さぞ困つてお出だらうと思つて出て来たから、今のお金もはじめツから、おまへの小遣ひにするつもり、まだ持て来たのがあるヨ。
(米八 → 仇吉) (色, 四編卷, 十一)

3. 2인칭대명사와 공기하는 1인칭대명사

「わちき」에 대해 池上秋彦²⁰⁾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わたくし」, 「わたし」보다는 한 단계 낮은 정의도를 가지며, 「친근한 감

20) 池上秋彦, 「人情本に現れた一・二人称代名詞について(一)」, 『鶴見女子大学紀要』, 第一号, 1963, p.11.

정」을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略) 여성이 주로 자신의 정부 또는 동료에게 사용하는 예가 대부분인 것으로부터도 추측 가능하다.

이와 같이 「わちき」는 화류계 여성 간의 대화에 자주 나타나는 1인칭대명사이다.²¹⁾ 그래서 『春色梅児誉美』과 『春色辰巳園』에서도 유녀인 米八, 此糸, 仇吉가 가장 많이 사용한 1인칭대명사는 「わちき」이다. 예27)은 「わちき」와 「おまはん」이, 예28) 예29)는 「わちき」와 「おまへ」가, 예30)은 「わちき」와 「おまへさん」이 공기하고 있는 예문이다.

예27) その時はわちきも何とやら信女と名弘めをして、極楽の新道へ世帯
を持たすは。とてものお世話ついでに冥土とやらの店請もおまはん
におたのみ申します。

(米八 → 藤兵衛) (春, 二編卷, 四)

예28) ヲヤ丹さん、おまへどうしたんだへ。何もそんなに腹を立なくつて
もいゝじやアないか。(略) わちき야またきぎに思はれゝば、猶のこ
とあくまでも付まとつてやるから、そう思つておいでよ。

(仇吉 → 丹次郎) (春, 四編卷, 十)

예29) わちきがあいそのつきる様に穢れて居るものをおまへも少しは何と
か思つておくれでも直にあいそのつきる種だはね

(仇吉 → 鬼九郎) (色, 四編卷, 十一)

그리고 娘淨瑠璃語り인 お長도 丹次郎에 대해 1인칭대명사 「わちき」를 사용하고 있다.

예30) それもわちきはおまへさんへ。およばずながらも志を尽すつもの

21) 湯沢幸吉郎, 『江戸言葉の研究』, 明治書院, 1992, p.85.

奉公と。泪を隠す坐敷の勤め。どふぞかわいそふだと思つておくんなさいよ

(お長 → 丹次郎) (春, 三編卷, 七)

즉 「오마へさん」, 「오마はん」, 「오마へ」 모두 소위 유녀어로 불리는 1인칭 대명사 「わちき」와 공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わちき」는 에도시대 유녀가 사용하는 1인칭대명사로, 상인 집안의 여성이 사용하기도 하였다.²²⁾ 그래서 女髮結인 お由의 1인칭대명사 「わちき」의 사용은 3예 찾아볼 수 있다. 예31)에서 お由는 비구니가 된 자신의 어머니에게 「わちき」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예)에서 お由는 부유한 상인이자 유곽의 손님인 藤兵衛에게 「わたくし」를 사용하고 있다.

예31) なぜと被仰けれど、わたくしが心がらこゝろとはいふものゝ、おまへさんの御信切を身にしみたくと思ひ込で、一生再会ないでも、女の意地を達とほして、未来とやらではぜひぜひと、仇念深く心を定めて、(略)

(お由 → 藤兵衛) (春, 三編卷, 九)

「わちき」와 함께 유녀의 「わたい」 사용례가 보인다. 「わたい」는 「わたし」가 변화하여 생긴 1인칭대명사로, 에도시대에는 유녀가 사용했다.²³⁾

예32)는 仇吉가 丹次郎에 대해, 예33)은 米八가 丹次郎에 대해 1인칭대명사 「わたい」를 사용하고 있는 용례이다.

예32) わたいが日ごろいふことだが、それに亦おまへも聞て知つてお出だ

22) 日本大辞典刊行会編, 『日本国語大辞典』10, 小学館, 1981, p.1373.

23) 日本大辞典刊行会編, 『日本国語大辞典』10, 小学館, 1981, p.1360.

ろうが、…… (仇吉 → 丹次郎) (春, 初編卷, 二)

예33) いかにも惚たを付込で我儘をいへばといつて、それじやアわたいが思
ひでも、おまへの冥利がわるかるふ。

(米八 → 丹次郎) (色, 初編卷, 三)

각 등장인물별로 주로 사용한 2인칭대명사와 공기하는 1인칭대명사를 나
타내면 아래의 <표8>와 같다.

<표 8> 2인칭대명사와 1인칭대명사의 주된 공기관계

『春色梅児誉美』와 『春色辰巳園』				
	화자와 청자 이름	화자와 청자의 관계	주된 2인칭대명사	주로 공기하는 1인칭대명사
2인칭 대명사	お長 → 丹次郎	娘淨瑠璃語り, 정혼자 → 유곽 손님	おまへさん	わちき
	米八 → 丹次郎	유녀 → 유곽 손님	おまはん おまへ	わちき わた
	仇吉 → 丹次郎	유녀 → 유곽 손님	おまへ	わちき わた
	お由 → 藤兵衛	女髮結 → 유곽 손님	おまへさん	わたくし
	仇吉 → 米八	유녀 → 유녀	おめへ	わた

V. 결론

본고는 근세 문학 작품인 『春色梅児誉美』와 『春色辰巳園』에서 유녀들이
사용한 2인칭대명사를 중심으로, 2인칭대명사의 종류, 화자와 청자의 관계,
호응하는 슬어의 경의도, 공기하는 1인칭대명사를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녀들은 남성 손님에게 주로 「おまはん」을 사용하였다. 유곽에서 일하는 女浄瑠璃語り도 손님에게 「おまはん」을 사용하였으나, 女髮結는 「おまはん」이 아니라, 「おまへさん」을 사용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둘째, 유녀들끼리 대화할 때 서로를 「おまはん」 또는 「おまへ」를 사용하였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감정이 내포되었을 때는 「おめ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셋째, 남성 손님에게 높은 경의를 나타내고자, 유녀가 손님에게 「あなた」를 사용한 용례는 찾아볼 수 없다. 유녀는 경의도에 따라 다양한 2인칭대명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유녀어 2인칭대명사 체계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おまへさん」과 「おまはん」은 호응하는 술어의 경의도가 유사하였다. 반면, 「おまへ」는 평상동사와의 호응도 다수 보여 경의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おまへさん」, 「おまはん」, 「おまへ」 모두 1인칭대명사 「わちき」와 공기하고 있다. 또한 「わちき」와 더불어 「わたい」도 유녀들이 다수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보다 폭넓은 언어자료를 바탕으로 2인칭대명사 뿐만 아니라, 1인칭대명사에 있어서의 유녀어 특징을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4년 5월 18일

논문 심사일 : 2024년 5월 26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5월 29일

참고문헌

- 近藤豊勝, 『江戸遊女語論集』, 新典社, 1993.
- 鳥越文蔵·校注, 「博多小女郎波枕」, 『近松門左衛門集二』, 日本古典文学全集 44, 小学館, 1987.
- 中村通夫·校注, 「浮世風呂」, 『日本古典文学大系』63, 岩波書店, 1976
- 日本大辞典刊行会編, 『日本国語大辞典』2, 小学館, 1979.
- 日本大辞典刊行会編, 『日本国語大辞典』10, 小学館, 1981.
- 真下三郎, 『遊里語の研究』, 東京堂出版, 1966.
- 山崎久之, 『国語待遇表現体系の研究』, 武蔵野書院, 1963.
- 湯沢幸吉郎, 『江戸言葉の研究』, 明治書院, 1992.
- 민승희, 「おまはん」에 관한 일고찰, 『日語日文研究』110, 한국일어일문학회, 2019.
- _____, 「人情本の「おまへ」の使用様相分析」, 『比較日本学』32, 漢陽대학교 日本学国際比較研究所, 2014.
- 池上秋彦, 「人情本に現れた一·二人称代名詞について(一)」, 『鶴見女子大学紀要』, 第一号, 1963
- チョコレートナヤ·アンナ, 「江戸語の位相—遊里語·武士詞」, 第3回国際日本学コンソーシアム, お茶の水女子大学大学院, 2009.
- 村上謙, 「近世後期上方における遊里語のあり方」, 埼玉大学国語教育論叢, 埼玉大学国語教育学会, 2014.
- 中納言, https://chunagon.ninjal.ac.jp/auth/login?service=https%3A%2F%2Fchunagon.ninjal.ac.jp%2Fj_spring_cas_security_check (검색일: 2024.04.30)
- 日本語史研究用テキストデータ集, https://www2.ninjal.ac.jp/textdb_dataset/index.html (검색일: 2024.04.30)

Abstract

A Study on the Use of Second-Person Pronouns of *yūjo*

: Focusing on ‘Shunshokuumeigyomi’ and ‘Shunshokuta tsuminosono’

Min, Seung Hee

This paper examines the second-person pronouns used by *yūjo* in the late medieval period in Ninjobon ‘Shunshokuumeigyomi’ and ‘Shunshokuta tsuminosono.’ This study focuses on the types of second-person pronouns used by *yūjos*, the relationship between speakers and listeners, the politeness level of corresponding verbs, and the first-person pronouns used in conversation.

First, *yūjos* primarily used the pronoun 「おまはん」 when addressing male guests. However, female *yoruri* narrators working in the entertainment district used 「おまはん」 for guests, while female hairdressers used 「おまへさん」, showing a difference in usage.

When *yūjos* conversed with each other, they used either 「おまはん」 or 「おまへ」. Additionally, when expressing criticism toward someone, they sometimes used 「おめへ」.

We could not find examples of *yūjos* using the pronoun 「あなた」 to express high respect toward male guests. Instead, the *yūjo*'s second-person pronoun system appears relatively simple system.

While both 「おまへさん」 and 「おまはん」 show similar politeness levels in terms of corresponding verbs, 「おまへ」 tends to be less polite when paired

www.kci.go.kr

with less polite verbs.

Keywords

yūjo(遊女), second-person pronoun, Shunshokuumegoyomi(春色梅兒譽美), Shunshokutatsuminoso(春色辰巳園)